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9

불법 만난 인연에 감사하라

[원문]
녹원원중백화향(鹿園苑中百花香)
동토산야춘초록(東土山野春草綠)
세존인하도솔래(世尊因何兜率來)
달마하사답강래(達摩何事踏江來)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번역]
녹야원 동산에는 꽃들이 향기롭고
동토의 산과 들에 봄풀은 푸르다.
세존은 무슨 일로 도솔천에서 오셨으며
달마는 무슨 일로 강을 건너 왔는가.

[선해(禪解)]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병장수하기를 원함에도 노력은커녕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란다. 이는 마치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옛날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일층과 이층을 짓지 않고 삼층을 먼저 지으려는 이야기가 있다. 삼층이란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이야기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깊은 유대 관계에 있어 하나라도 부실하면 성불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우리의 건강도 이와 같다.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턱대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남이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도 건강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자신이 배가 고프면 밥먹어야지 남이 밥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정으로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그러한 원(願)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자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면 된다. 스님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첫째, 정정(正定)으로서 기도와 참선과 사경이다. 이 수련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굳은 신념이 형성되어 매사에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열의는 마치 전등을 밝혀주는 발전소와 같다.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는 정업(正業)으로서 몸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데에 있다. 좋은 습관을 몸에 가지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면 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고장이 나듯 우리의 몸도 일정하게 좋은 행위의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은 몸의 정상유지는 물론, 비만을 방지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는 정어(正語)로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의사전달과 서로 간의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란 친화력을 가지는데 말 하나를 통해서 불행했던 일상의 생활이 밝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며 병약하던 몸이 건강해 진다. 이것이 곧 '말의 힘'이다.

가롱성진(假弄成眞)이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농담 삼아 하던 것이 궁극에는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말은 어떤 마력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말 그 자체는 물론이고 말을 자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말과 똑 같은 것이 형성되고 나아가서 남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부처님 설법은 얼어붙은 세상에 봄이 찾아 온 것
끝없는 정진으로 중생구제 서원 일으켜야 참불자

그리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생활을 개선하며 운명을 개선하려면 매일 두세 번 정도씩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선하고 밝은 말로 마음을 깨끗이 해줌으로써 원하는 바가 그대로 개선된다. 그러므로 정정과 정업, 정어를 제대로 지키면 저절로 몸은 건강해지고 무병장수를 하게 된다.

오늘의 가을여행은 가을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 대웅전이다. 치악산은 풍광(風光)이 무릉도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절경이다. 그래서 여행객과 등산객들이 항상 붐비는 곳으로 유명하다. 백두대간의 주맥(主脈)이 오대산을 거쳐 서쪽으로 태기산을 지난 극동의 명산(名山)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산이 품고 있는 대찰(大刹)이 바로 구룡사(龜龍寺)이다.

조계종 제 4교구의 말사로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8년(668)에 세운 절로 아홉 마리의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창건이후 계속해 도선 국사 · 무학 대사 · 서산 대사 등이 거쳐 간 영서 수찰(首刹)이다. 조선 중기 이후 절 입구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 때문에 절 이름도 '아홉구'를 '거북 구'자로 고쳐 썼다고 한다. 말하자면, 풍수지리적으로 '천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연꽃을 토하고 있고, 영험한 아홉 마리의 용이 구름을 풀어 놓은 형상을 한 천하의 성지'가 바로 치악산 구룡사이다.

절 입구에 있는 황장금표(黃腸禁標)는 조선시대 이 일대에서 무단 벌목(伐木)을 금한다는 방으로 전국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존 당우는 대웅전, 보광루, 삼성각, 심성당, 설선당 등이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을 음미해 보자.

'녹야원중백화향 동토산야춘초록': 녹야원 동산에는 꽃들이 향기롭고 동토의 산과 들에 봄풀은 푸르다.'

녹야원은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주(州)의 남동쪽에 있는 바라나시(市) 북쪽 사르나트에 있는 불교 유적을 말한다. 이곳은 선인론처(仙人論處) · 선인주처(仙人住處) · 선인녹원 · 선인원(仙人園) · 선원 · 녹원(鹿苑) · 녹림(鹿林)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성도(成道)한 후 최초로 설법해 아야다교진여(阿若多僑陳如) 등 5명의 비구(比丘)를 제도(濟度)한 곳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성도(成道)한 부다가야, 입멸한 쿠시나가라와 더불어 불교의 4대 성지로 뽑힌다. 이곳에는 다메크탑(塔)을 비롯한 많은 불교 유적과 사원(寺院) · 박물관 등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박물관에는 아소카와 석주두(石柱頭)를 비롯해 많은 유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특히 네 마리의 사자상으로 된 주두는 인도미술 최고의 걸작으로 마우리아기(期)에 속하는 가장 오래 된 유물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해 녹야원의 꽃들이 향기롭고 얼어붙은 동토에 봄이 와 푸르듯이 어쩌면 구룡사가 바로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한국 불교의 녹야원인지도 모른다.

'세존인하도솔래 달마하사답강래': 세존은 무슨 일로 도솔천에서 오셨으며 달마는 무슨 일로 강을 건너 왔는가.'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欲界) 6천(六天) 중의 제4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솔천은 지족(知足) · 묘족(妙足) · 희족(喜足), 또는 희락(喜樂)이 있는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내원(內院)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이라고 하며, 석가도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도솔천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도솔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것은 수행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며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강을 건너 온 것도 바로 중생구제 때문이다. <화엄경>에 '인생난득 불법난봉(人生難得 佛法難逢)'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또한 부처님의 법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말법시대에 살고 있으나 부처님과 달마 대사를 만나 불법(佛法)의 기쁨을 한량없이 누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깊이 수행해 깨달음의 길로 당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9

견성 해야 생사윤회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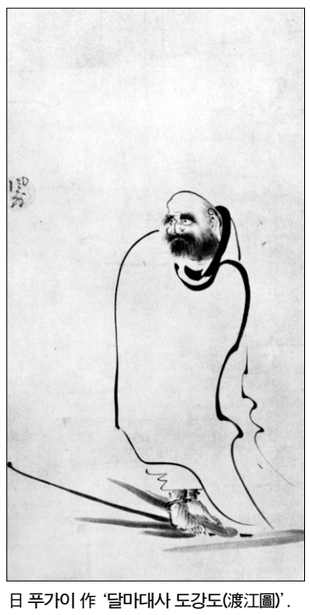
[원문]

若於生死中得自在 轉一切法 與聖人神通自在無無處不安. 若心有疑 決定透一切境界不過 不作最好. 作了不免輪廻生死. 若見性 陀羅亦得成佛.問曰 陀羅殺生作業 如何得成佛.答曰 只言見性 不言作業.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 일체의 법을 굴려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자재해 걸림이 없으면 불안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해 생사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겠지만, 견성을 하면 전다라(수렵, 도살, 형참 등을 업으로 하는 아주 낮은 천민)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전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성품을 보라고 말하였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니라."


日 푸가이 作 '달마대사 도강도(渡江圖)'.

[해설]

본래 불성자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끄달려가고, 배고픔에 끄달려가는 중생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아침밥 먹은 것을 잊듯이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주를 자유자재로 신통을 쓸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과 밖이 끊어져야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바로바로 놓기만 하면 도인이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달마 대사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믿지 못한다면 영원히 윤회를 면치 못하지만 우주 근본 성품자리만 깨닫게 되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사는 분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나 그 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전생의 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이 오면 그대로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만 일러주는 것이지 성불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심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성품을 보라고 말하였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래 성품을 깨달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진을 통해서 성품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꿈을 꾸다 깬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허망하다 이런 얘기죠. 성품을 보지 못한 삶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도 전도몽상(顚倒夢想) 즉,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이고 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나'이고 육신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상세계, 도리천에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계에서는 백 년에 해당됩니다. 도리천에서 보면 인간세계는 하루살이입니다. 백 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세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경계는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양 집착을 함으로써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수억 년의 생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생에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고 생로병사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출가를 해서 도를 깨치고 보니 "진정한 나는 '마음'이지 '육신'은 나가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도를 깨닫고 마음자리에서 우주의 실상을 비추어 보니까 '우주가 그대로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육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경계의 대상도 사실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공(空)'이라고 법문하는 겁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살기에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깨고 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를 깨쳐서 마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다 사실이 아닌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우주가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 체험할 때는 의심을 안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 줘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마음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성품(性品)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을 본 다음에 염불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품자리를 보지 않고 하는 염불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이라는 뜻을 바르게 아셔야만 바른 수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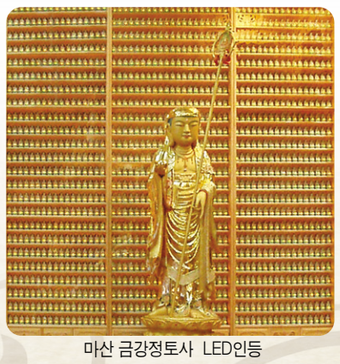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